

중국을 왕래해 오던 홍주성지가 있는곳

충절의 고장으로서 값진 유산과 수려한 멋을 자랑하는 홍성군. 충청남도 서북부 지방의 요새일 뿐 아니라 옛부터 서산군 태안반도에 있는 안홍항을 연결하여 중국을 왕래해 오던 홍주성지가 있는 곳으로 서해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홍성군은 서울에서 온양을 거치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약 3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 106km, 천안에서 58.4km 밖에 안되는 거리이다. 최근 인접지역 서해안시대의 영향으로 도시화 물결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골 내음이 상큼 코 끝에 와 닿았다.

질게 깔려 잔잔히 스며 들러온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 마치 홍성의 방언이 나아가서는 충청도 전체의 방언으로 통용되는 듯했다. 이 지역이 넓게는 중부 방언권에 속해 언어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윽하게 충청도 고유의 색채가 농후해 지는 것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또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방언의 대표적 특징은 「느린어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같은 호서지방이라고 해도 남쪽이 북쪽보다 더 심하고, 같은 남도에서는 차령산맥 동쪽, 즉 경부선 쪽보다도 서쪽의 태안반도 일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특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느린어조」가 다른 방언에 비하

여 얼마만큼 느리며, 그것이 충남선 연변에서 얼마나 극대화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국에서 가장 「느린어조」를 가졌다고 할 이 일대의 중심지인 홍성은 충청도적 언어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2개읍과 9개면으로 인구는 11만6천5백여명

홍성군의 총면적은 약 421,32km²로 충청남도 총면적 약 8,789km²의 4.8%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가구수에 따른 인구분포(그림1)를 보면, '80년 2만6천6백여가구에 13만2천70여명이었던 것이 '87년에는 2만7

천30여가구로 4백여가구가 늘어난 반면, 인구는 급격히 줄어 '87년 현재 11만6천여명이 살고 있다. 특히 '84년과 '85년 사이에 가구수는 늘어났지만, 인구는 7천5백여명이나 줄어든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이같은 가구수 변동없이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도시화에 따른 농촌의 피폐로 젊은층이 도시로 이동한 현실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2개읍과 9개면으로 타 도의 군보다 큰 편에 속한다는 홍성군은 행정중심지가 홍성읍을 기점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읍면별 면적순을 보면 장곡면이 제일 넓고, 그 다음으로 홍동면, 홍북면, 갈산면, 서부면, 구항면, 결성면, 금마면, 은하면, 광천읍, 홍성읍의 서열로 되어 있다.



서북부지방의 요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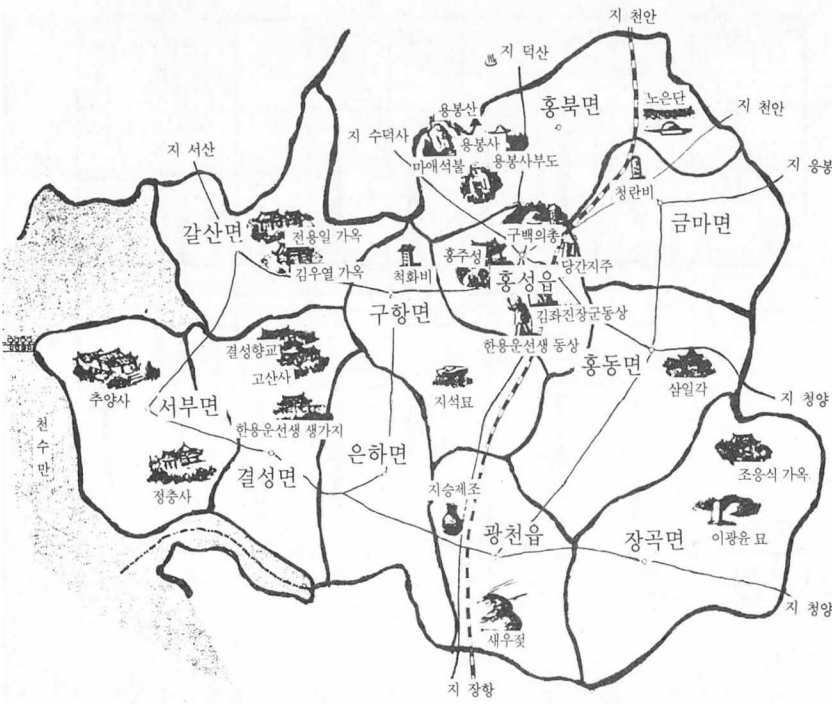
홍주군의 「홍」자와 결성군의 「성」자를 따서 홍성군으로 개칭

장엄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높은 위상을 볼 수 있다. 백제시대 결기현으로 홍성과 결성지역을 함께 관할하였고, 그후 신라시대에는 신촌현과 사시랑현으로, 통일신라 시대에는 결성군·이산군으로 불리어 오다 현종 3년(고려시대)에 홍주로 바뀌어 주지사를 두어 다스려 왔다는 것.

그러나 고종 32년(조선시대)에 전국을 23부로 행정구역 개편할 때 홍주부를 두어 인근 22개군을 관할하여 왔다. 그후 1897년(광무원년)에 홍주군과 결성군으로 개편하여 왔으나, 1914년 행정구획 폐합시 홍주군과 합하여 홍주군의 「홍」자와 결성군의 「성」자를 따서 홍성군이 되었다는 설이다. 이와함께 1940년 당시 11개면중 홍양면을 홍주면으로 고치고 다시 홍성읍으로, 또 1942년에는 광천면을 광천읍으로 승격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군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유래가 깊은 것은 홍성군의 자랑이다. 처음 성의 주위가 1,300척의 토성으로 성첩이 400이었다는 기록이 있는 홍주성지를 비롯하여 홍주성의 동문인 조양문, 홍주목사가 행정업무를 해온 홍주아문 등이 장구한 모습을 드러내 주고 있다.

해방후 이같은 홍주성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1972년 성곽과 조양문, 홍주아문이 사적 제231호로



〈홍성군 명승고적 및 안내도〉

홍주성지가 있는 홍성군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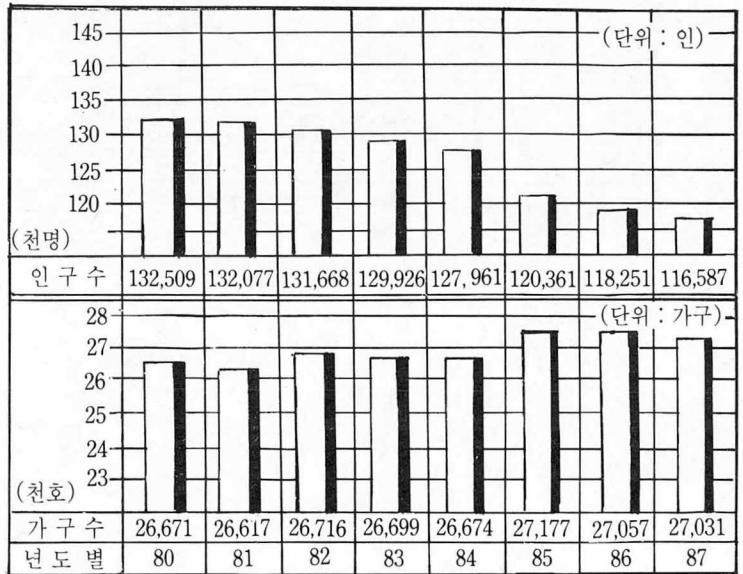
특히 홍성군은 사육신의 선봉인 매죽헌 성삼문선생, 백야 김좌진장군, 만해 한용운선생 등의 인물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타 지역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성삼문선생은 세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집현전 학자로서 훈민정음 창제를 보필하였고, 그후 세조의 탄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그가 형장으로 끌려갈때 마지막 남긴 시조가 우리 곁에 생생이 전해지고 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되었다가 백설(白雪)이 만견곤(滿乾坤)할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

이와같이 홍성땅 구석구석마다 옛선조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많은 문화유산과 유적을 보유한 홍성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에 밀려 선조의 영달을 지켜주지 못하고 농정에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89년 9월현재 돼지사육두수는 12만5천7백여두, 사육호수는 6천3백89 호

양돈농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양돈업 자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두 전후 돼지사육농가가 주를 차지하고 있고, 50두에서 999두까지는 10여농가, 1,000두 이상은 1개업체에 불과해 성장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경영과 사양기술 수



〈그림1〉 홍성군 인구 및 가구 변동 추세

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홍성군의 돼지사육두수는 '85년 이래 '88년까지는 매 1년마다 2만여두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그림2). '89년 9월 현재의 사육두수는 12만5천7백45두로 '88년 13만3백87두보다 4천6백12두가 줄어든 반면, '87년 12월의 9만7천6백37두 보다는 무려 2만8천1백여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사육호수를 보면, 사육두수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2). '86년 6천6백1호로 '85년 7천2백14호에 비해 1천1백53호나 줄었는데, 사육두수는 2만여두나 늘었다. 특히 '88년 6천6백85호로 '87년 6천9백15호보다 2백30호나 줄어든 반면, 사육두수면에서는 '88년이 '87년(9만7천6백37두)보다 무려 3만2천7백50여두가 늘어났다. '89년 9월현재 6천3백89호로 '88년 6천6

백85호에 비해 2백96호나 줄은 것은 돼지값 하락으로 영세 양돈농가가 양돈업을 포기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많다.

읍·면별 돼지사육두수 및 호수 현황(표1)을 살펴보면,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89년 9월 현재 흥북면이 2만9천여두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광천읍 홍성읍, 장곡면, 흥동면 순으로 군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그외 지역은 양돈업이 활발해 지지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돈업 등록업체는 28개, 종돈장은 3개업체에 불과해

이와 더불어 '89년 6월 현재 홍성 지역은 휴업중인 천광산업을 빼고 흥북면 내덕에 위치한 남부햄 홍성

〈표1〉 홍성군 읍·면별 돼지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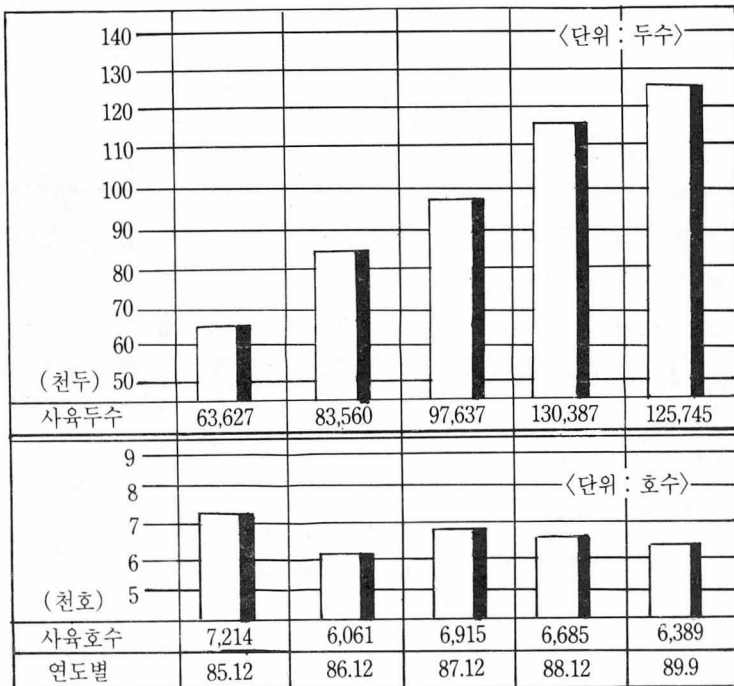
(단위: 두, 호)

연도(구분)	읍·면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결산면	구항면	계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87.12	두수	10,816	14,345	26,117	4,861	11,425	6,668	3,049	4,519	2,036	8,920	4,881	97,632
	호수	462	689	442	590	783	793	524	500	642	957	533	6,915
'88.12	두수	13,105	19,897	28,387	7,906	10,492	13,486	7,988	5,360	3,105	11,926	8,735	130,387
	호수	415	661	373	483	682	855	586	566	603	864	605	66,85
'89. 9	두수	13,855	19,753	29,078	8,795	11,242	12,945	9,714	3,569	4,296	7,747	4,751	125,745
	호수	299	583	414	528	749	896	543	573	691	775	338	6,389

〈표2〉 홍성군 종돈업 현황

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혈통등록두수			일반검정 두수	기간중 종돈판매
			계	♂	♀		
남부햄홍성농장	권태은	홍성·홍북면 내덕	222	201	21	222	410
홍성종돈장	김병문	홍성·홍성읍 소향	59	47	12	59	67
영풍축산	오규삼	홍성·홍북면 내덕	80	61	19	80	125

자료: 농림수산부 종돈업 통계자료(89년 6월 현재)



〈그림2〉 홍성군 돼지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동향

농장(대표: 권태은)이 1만1천8백 26두로 유일한 허가업체이다. 양돈업 등록은 28개 업체(1만9천4백24

두)로 홍성군 총사육두수(12만5천 7백45두)의 15.4%에 불과한 두수이다.

이밖에 종돈장으로는 허가업체인 남부햄 홍성농장을 비롯해 홍성읍 소향리의 홍성종돈장(대표: 김병문)과 홍북면 내덕리의 영풍축산(대표: 오규삼)등 3개종돈장이 등록되어 있다(표2).

도시발전에 못지않게 지역발전이 활성화 되고 있는 홍성군은 영세 양축농가들이 기존의 생산적인 틀에서 과감히 탈피, 전업농으로서 성장하여 대소비지와 연결만 서두른다면 성장산업으로서의 양돈산업은 확고한 자리를 잡게될 것이다.

지리적·환경적으로 도·농간의 잠재의식이 교차하는 홍성군. 정부의 서해안개발과 더불어 언젠가는 홍성땅 곳곳에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불모의 늪에서 뿌려온 문화의 씨앗과 함께 양돈산업도 밀지 않아 찬란히 꽃피워지리라 확신한다. **■**

취재: 곽삼섭 기자